

<기획 논문 - 접경의 인문학 : 조우와 충돌>

11세기 중반 宋-거란의 접경 지역을 둘러싼 충돌과 외교 교섭*

李瑾明**

목차

- I. 머리말
- II. 거란의 關南之地 요구
- III. 송-거란 사이 외교적 절충의 진행
- IV. 呂夷簡의 실각과 개혁 세력의 등장
- V. 맺음말

I. 머리말

1040년대에 들어서며 北宋의 정치는 중대한 위기 국면에 처한다. 무엇보다 西夏의 李元昊가 송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서쪽 변경지대에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澶淵의 맹약으로 거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과 평화 조약을 체결한 이래 송조는 북방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연 西夏와 전쟁이 벌어지자 軍備가 부실한 宋朝는 연패를 거듭하였다. 송 조정은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켜 갔다. 그러나 끝내 무력으로 西夏를 제압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군대 숫자의 증대로 말미암아 재정 부족만 심화되어 갔을 뿐이다.

1040년경이라 하면 仁宗이 즉위하여 약 20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다. 또한 재상 呂夷簡이 國事를 주도한지 10여년이 흘러 그 세력이 정계에 두루 퍼져 있는 상태였다. 西夏에 대한 전략과 정책 역시 呂夷簡 및 그에 左袒하는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서하와의 전쟁은 北宋의 군사적 나약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방의 소국으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 판단했던 서하에 대해 북송의 군대는 제대로 대응다운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인종 康定 元年(1040)에 있었던 三川口 전투와 이듬해 벌어진 好水川 전투에서의 참담한 패배는 북송 조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范仲淹과 韓琦 중심의 대서하 정책이 채택되어 가까스로 전선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범중엄은 三川口 전투 직후인 1040년 8월 최전선에 위치한 延州 지주에 임명되었다. 그는 堅壁清野의 정책을 취하며 변경지구에 城寨를 修築하고 군대 조련에 주력하는 방식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범중엄과 한기를 파견한 이후에도 송조의 군사적 열세는 지속되었다. 1041년(慶曆 元年)에는 好水川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이듬해에는 定川寨 전투에서도 참패를 당하였다. 이처럼 西夏와의 전쟁으로 북송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북방의 거란이 關南之地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關南이란 燕雲十六州 가운데 後周의 世宗에 의해 수복되었던 2州 10縣 지역을 가리킨다. 거란의 요구에 북송은 곤경에 처했다. 이러한 곤경을 훌륭히 타개하여 北宋 조정을 구해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富弼(1004~1083)이다. 그는 수 차례나 거란에 出使하여 거란의 무리한 요구를 적절

히 차단하며 송측의 이해 관계와 위신을 잘 지켜냈다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1040년경은 여이간 일파의 권세가 절정에 달하던 시점이다. 또 富弼은 경력 3년(1043) 이후 전개된 이른바 ‘慶曆新政’의 주도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경력신정이란 잘 알려져 있듯 십수년 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며 정국을 장악하고 있던 여이간이 파직되고, 그 대신 신진 관료가 등장하여 국정 각 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시도였다. 송-거란 사이 국경 분쟁이 결착된 직후 북송 정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국의 변화는 어떠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1040년대 초반에 전개된 송-거란 사이의 국경 분쟁, 그리고 그 해결의 주역이었던 부필의 활약은, 이 시기 북송 정국의 급박한 굴곡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부필의 거란 出使와 국경분쟁 해결 노력에 대해 당시 북송의 정계, 그리고 각 정파는 어떠한 대응을 보였던 것일까?¹⁾

II. 거란의 關南之地 요구

1042년(仁宗 慶曆 2) 2월 거란은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關南之地 10縣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거란의 이러한 조치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취해진 것이었다. 당시 거란의 興宗은 27세로서 즉위한지 11년이 된 상태였다. 또 1034년(거란 興宗 重熙 3, 宋 仁宗 景祐 원년) 전횡을 일삼던 法天太后를 제거한 이래 정권이 점차 공고해져 가고 있었다.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興宗과 군신은 송이 西夏와 전쟁으

1) 仁宗 慶曆 年間 宋-거란 사이 關南之地를 둘러싼 外交의 折衷 및 富弼의 出使와 關聯한 研究로는 現在까지 陶晉生, <宋慶曆改革前後的外交政策>(〈宋遼關係史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4); 朱小琴, <宋遼關南地之爭>(〈西安教育學院學報〉, 2000-6); 張顯運, <從出使契丹看富弼的外交才能>(〈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5-6, 2005) 등이 發表되어 있다.

로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송측에 關南之地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宋에 대한 전면적 남침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南院樞密使였던 蕭惠는, “宋과 우리 거란 양국의 군사력은 폐하께서 잘 아시는 바 대로입니다. 宋人은 근래 몇 년 간 西夏와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는 지쳐 있고 백성은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폐하께서 친히 六軍을 이끌고 출정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²⁾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앞서 거란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송도 간파하고 있었다. 1041년 10월, 변경에 위치한 雄州에서 거란의 동태를 탐지하고 ‘거란이 군대를 모집하여 장차 入寇하러 한다.’³⁾라고 보고하였다. 송 조정에서는 이 보고에 따라, 국경 지대 21州에 배치된 군대를 증강하고 성채를 보수하였다.

여기서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 하나 있다. 1042년 전후 거란의 割地增幣 요구와 관련하여 송측의 사서에서는, 이를 철저히 거란의 澶淵之盟 위약이라 적고 있다. 그런데 거란은 割地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송측의 邊防 강화, 군대의 증강과 성채 보수를 들고 있다. 澶淵之盟에서는 宋-거란 간 국경의 군비를 당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노후된 시설을 보수할 때에도 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송은 거란과의 변경 지대에서 수시로 군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西夏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도 거란의 남침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병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城寨 및 방어용 시설의 확장도 수시로 진행시켰다. 1041년의 방어 태세 정비 또한, 21州라 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宋-거란

2) <遼史> 卷93, <蕭惠傳>. 兩國疆弱, 聖慮所悉. 宋人西征有年, 師老民疲, 陛下親率六軍臨之, 其勝必矣.

3) <長編> 卷134, 仁宗 慶曆 元年 10月 戊寅. 契丹調兵, 將謀入寇

접경 지역에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단행되었다. 거란이 지적하는 송의 澶淵之盟 위약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⁴⁾

이러한 송측의 대비, 변방의 강화는 거란에게 송에 대한 압박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거란은 송의 군대 증강과 성채 증설이 맹약의 위반이라 지적하고, 또한 송이 서하를 공격하기에 앞서 거란에 사전 통고하지 않았던 점을 질책하였다. 거란과 서하는 藩屬關係에 있을 뿐더러 甥舅 관계에 있으니 송은 서하 공격을 거란과 미리 상의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 사이의 분란과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거란의 고지인 關南之地를 반환하라 요구하였다.⁵⁾

關南之地는 송요간 국경지대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화북 평원의 북단에 위치하여 양변의 저지대를 굽어볼 수 있는 산지였기 때문에, 송측은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거란의 騎兵隊를 제지할 수 있는 방어 진지를 구축해 두고 있었다. 특히 그 南邊에는 太宗 연간 이래로 易河로부터 渤海로 이르는 지점까지 제방을 수축하여 湖塘을 연결시켰다. 이를 ‘水長城’이라 불렀다. 關南之地를 상실할 경우 水長城의 방위도 대단히 곤란한 상태였다. 송에게 關南之地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결코 거란의 요구대로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었다.

거란의 사자인 南院宣徽使 蕭特末과 翰林學士 劉六符는 1042년 3월 송의 東京에 도착하였다. 거란이 국서를 전달하자 송 조정은 전전공공하였다. 거란과의 교섭에 나설 사신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시의 史書에서는, “仁宗이 宰相에게 명하여 報聘할 인물을 선정하라 하였다. 하지만 당시 거란의 동태를 예측할 수 없어 群臣 가

4) 慶曆 2年 當時 거란이 宋에 割地를 要求하며, “南朝違約, 塞雁門, 增塘水, 治城隍, 籍民兵, 此何意也?”(<長編> 卷137, 仁宗 慶曆 2年 7月 壬戌) 라 말하는 것도 그러한 情況을 잘 보여준다.

5) <長編> 卷135, 仁宗 慶曆 2年 3月 己巳.

운데 누구도 감히 가려 나서는 자가 없었다.”⁶⁾고 전하고 있다. 외교적 절충의 귀추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위험한 역할을 떠맡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권자 呂夷簡이 富弼을 추천하였고, 부필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란과의 교섭 임무를 떠안았다.

당시 부필은 諫官으로서 范仲淹, 歐陽脩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呂夷簡이 집권한 이래 누구 한 사람 감히 대항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富弼은 수 차례나 呂夷簡에 맞서 그政事를 힐난하였다.”⁷⁾고 하듯 비판적 주장을 개진하며 집권자인 呂夷簡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1041년(경력 원년) 9월에는 開封府의 度牒 위조 사건을 둘러싸고 呂夷簡과 심각하게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여이간은 이때의 일로 ‘몹시 불쾌해 했다.’⁸⁾고 한다. 여이간의 추천은, “일부러 부필을 거란에 사자로 추천하여 함정에 빠트리려고 한 것이었다.”⁹⁾고 하듯, 부필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하는 의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부필이 거란행 사신으로 결정되자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臺諫官은 일치된 목소리로 여이간의 음험한 책략 및 부필에 대한 위해 기도를 비판하였다. 이 무렵 仁宗은 臺諫職을 서서히 강화시키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었다. 仁宗의 치세에 들어 대간관의 인원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상도 현저히 강화되었다.¹⁰⁾ 대간관들의 이러한 부필 옹호와 여이간 비판은, 부필 자신 右正言으로서 간관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6) 朱熹, <三朝名臣言行錄> 卷2之1, <丞相韓國富文忠公>. 仁宗命宰相擇報聘者, 時虜政不可測, 群臣皆莫敢行.

7)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卷37, <富弼出使>. 呂夷簡當國, 人莫敢抗, 弼既數論事侵之.

8) 위와 같음. 滋不悅.

9) 위와 같음. 故薦公使契丹, 欲因事罪之.

10) 刁忠民, <宋代台諫制度研究> (成都, 巴蜀書社, 1999), 頁55-56.

孫沔, 張方平 등의 臺諫官들이 대부분 呂夷簡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당시 현안에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잘 알려져 있듯 1033年(인종 명도 2) 간관에 임용된 范仲淹은 <敕弊八事>란 상주문을 올려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이를 계기로 歐陽脩, 余靖, 蔡襄, 尹洙, 韓琦 등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신진 관원들이 점차 결속하기 시작하였다. 1035年(인종 경우 2) 范仲淹이 <百官圖>를 제출하여 여이간 중심의 파벌 형성을 공박하다가 폄관될 때에는, 歐陽脩, 余靖, 尹洙 등이 일치된 목소리로 그를 옹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40년 전후가 되면 여이간의 국정 농단에 반대하여 개혁을 부르짖는 일군의 관원들이 점차 명확한 모습을 갖추게 된 상태였다.

여이간이 부필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그를 거란행 사자로 추천하자, 대간관뿐만 아니라 尹洙, 歐陽脩 등 평소 부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인사들도 강력한 목소리로 여이간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歐陽脩는 당 후반기에 顏眞卿이 李希烈에게 사자로 갔다가 생환하지 못했던 사실을 들며, 여이간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富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공박하였다.¹¹⁾ 이러한 비판과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논란은 점차 여이간의 정국 운영방식과 외교 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하였다. 서하와의 외교를 주도한 章得象, 晏殊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대간관들은 거란과의 교섭에서 다시 그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부필의 거란 使節行을 둘러싼 논란은 북송 정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呂夷簡의 독선적이면서도 부당한 정책이

11) <宋史紀事本末> 卷21, <契丹盟好>.

부각되었고, 더불어 여이간에 대한 반대 세력도 점차 결집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富弼의 거란 파견은 명쾌하게 매듭지어졌다. 부필 자신 거란행 사자의 직임을 흔쾌히 수용하고 그것을 황제 인종 앞에서 명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主君이 근심에 빠지는 것은 신하 된 자의 굴욕입니다. 臣은 감히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겠나이다.’¹²⁾라고 말하며 인종을 감동시켰다.

Ⅲ. 송 - 거란 사이 외교적 절충의 진행

1042년(인종 경력 2) 4월 부필은 거란에 國信使로 파견되었다. 부필은 송 조정에서 거란측에 전달하는 국서를 휴대하고 갔다. 여기에는 거란이 제기한 문제들, 즉 關南之地의 환수를 요구하며 그 명분으로 들었던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었다. 첫째로 關南이 거란의 故地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澶淵의 화의 당시 이전의 細故는 모두 불문에 붙이기로 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둘째로 서하에 대한 공격을 미리 거란측에 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하가 이전부터 거란에게 뿐만 아니라 송에 대해서도 칭번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거란측의 말과는 달리 송의 서하에 대한 정벌에 앞서 거란에 통고하였음도 지적하였다. 실제로 北宋은 1040년(인종 康定 원년)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하에 대한 공격을 통지한 바 있다.¹³⁾ 마지막으로 성채 및 도로의 보수, 병졸의 훈련은 邊臣의 일상적인 직무 이행일 뿐이라 해명하였다.

이러한 국서의 내용은 당시 국정을 주도하고 있던 여이간의 의사가 크

12) <宋史> 卷313, <富弼傳>. 主憂臣辱, 臣不敢愛其死.

13) <長編> 卷128, 仁宗 康定 元年 7月 乙丑.

게 반영된 것이었다. 여이간은 여타 재집들과 협의하여 거란에 대한 대처의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국서에 담아 부필에게 전달시켰다.

아울러 송조는 거란의 關南之地 반환 요구에 대해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그 대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거란 황실과의 혼인 및 세폐의 증액이었다. 양국 황실 간의 결혼은, 거란이 和好的 공고화를 위해 故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었다. 송 종실의 여인을 거란 皇子와 결혼시킴으로써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자는 논리였다. 다음으로 세폐의 증액, 거란이 반환을 요구하는 關南之地의 稅收를 현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거란에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을 둘러싸고 송조 내부에서는 상당한 이론이 있었던 듯하다. 우선 사신으로 파견된 부필 자신, 거란측과 절충할 때 원칙적으로는 혼인과 세폐의 증액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하면서도, 가능한 한 양국 황실 사이의 혼인은 기피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한 송조 내부에서도 여이간에 대해 비판적인 臺諫官을 중심으로 혼인이 세폐의 증액보다 훨씬 國體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당시 거란은 송측에 關南之地의 割地를 요구하며, 국경 지대에 대군을 집결시켜 송을 위협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河北 및 京東 일대의 변경에서는 큰 위기감이 감돌았다. 뿐만아니라 조정에서도 거란의 남침에 대비하여 洛陽城을 증축해야 된다는 논의도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필은 거란에 갔다. 그는 거란 조정에 도착하여 수차에 걸쳐 거란 군신과 담판하였다. 그 내용은 송대 典籍을 통해 상세히 전해지고 있거니와, 공히 부필이 거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義理로 논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필의 발언은 여이간 중심의 송 조정에서 내린 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거란에 전하는 것이었다. 당시 송이 거란에 제시한 두 번째 대안, 즉 세폐의 증액에는 약간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關南之地 稅收에 대한 補填으로서 고정액 10萬을 추가하되, 만일 거란이 西夏에 영향력을 미쳐 송에 稱臣하게 한다면 10萬을 더 추가로 제공하겠

다는 것이었다. 부필이 거란측에게 종실 사이의 혼인보다는 세계의 증액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적에 기록되어 내용이 부필의 발언을 얼마나 충실히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송의 황제 仁宗이 “朕은 兩國의 生民을 애처롭게 생각한다. 그들의 肉身에 길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 차라리 金帛을 내어 北朝 거란의 욕심에 맞춰 주려다.”¹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전통 시대 중국 문헌의 상투적이고 고루한 수사라 치더라도, “北朝 거란은 章聖皇帝 眞宗의 大德을 잊었는가? 澶淵의 전쟁 당시 만일 眞宗께서 諸將의 말을 따라 거란을 공격하였다면, 北朝의 병사는 死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¹⁵⁾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은 극히 신뢰하기 힘들다. 1004년 澶淵之盟이 있기 전 송-거란 사이의 전쟁은 그 전황이 송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거란측으로서는 송이 곤경에 처하여 굴욕적으로 요청한 城下之盟이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거란의 조정에서 과연 부필이 송측의 인식에만 입각하여 발언하였을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만일 이렇게 발언하였다면 거란의 반발을 샀을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거란은 결코 부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필은 거란에 사절로 가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절충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실리적인 입장에서 거란을 설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割地와 歲幣, 宗室 여인과의 결혼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이 거란측 내지 거란의 황제에게 실익이 되는가를 차분히 설명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北朝 거란이 宋과 通好한 즉 거란의 황제가 그 이익을 모두 누리고 臣下는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된다. 만일 전쟁을 벌이면 이익은 臣下에게 돌아가고 거란 군주는 오히려 피해만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의 諸臣

14) <長編> 卷137, 仁宗 慶曆 2年 7月 壬戌. 朕念兩國生民, 不欲使之肝腦塗地, 不愛金帛以徇北朝之欲.

15) 위와 같음. 北朝忘章聖皇帝之大德乎? 澶淵之役, 若從諸將之言, 北兵無得脫者.

들이 전쟁을 원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그들 자신을 위한 計略일 뿐 나라를 위한 말이 아니다.”¹⁶⁾ 라는 發言, 그리고 “만일 通好가 이어지면 歲幣는 모두 거란의 君主에게 돌아간다. 신하가 얻는 이익은 단지 使臣으로서 宋에 가는 한 두 사람에게 그칠 따름이다. 群臣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¹⁷⁾ 등과 같은 설득이야말로, 거란의 興宗이 왜 부필의 제안에 따랐을 지를 잘 보여준다. 부필이 송대의 史籍에 적혀 있듯, 義理로써 論辨하여 거란을 설복했을 리 없다. 그의 냉철한 실리 분석과 이에 대한 거란 황제의 동의로 인해 慶曆 연간 增幣 문제가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富弼이 다시 거란에 사신으로 파견된 것은 1042년 7월의 일이다. 거란측의 최종 답변을 듣고 그에 따른 國書 및 誓書를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여이간은 부필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문서의 내용과는 다른 지침을 구두로 부필에게 하달하였다. 부필은 변경 지역까지 도달하였다가 국서 및 誓書의 내용이 미심쩍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자신에게 전한 지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그는 조정으로 돌아와 여이간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새로이 작성한 문서를 지니고 거란으로 向하였다. 이때 부필은, “재상께서 끝내 이렇게 한 것은 臣을 死地에 내몰고자 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臣은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나 國事는 장차 어찌할 것이오?”¹⁸⁾라 말하고 있다. 또 晏殊가, “呂夷簡은 결코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오.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 여겨집니다.”¹⁹⁾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부필은 노하여 “晏殊는 간사합니다. 呂夷簡에 들붙어 폐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²⁰⁾라고 공박하였다. 呂夷簡 및 晏殊의 이러한 행태

16) 위와 같음. 北朝與中國通好, 則人主專其利, 而臣下無所獲. 若用兵, 則利歸臣下, 而人主任其禍. 故北朝諸臣爭勸用兵者, 皆爲其身謀, 非國計也.

17) 위와 같음. 若通好不絕, 歲幣盡歸人主, 臣下所得止奉使者歲一二人耳, 羣臣何利焉?

18) <長編> 卷137, 仁宗 慶曆 2年 7月 癸亥. 執政固爲此, 欲致臣於死, 臣死不足惜, 奈國事何?

19) 위와 같음. 夷簡決不肯爲此, 眞恐誤爾.

는 조야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臺諫官들은 여이간의 음모에 대해 강력히 탄핵하였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여이간이 주도한 거란과의 절충 내용, 즉 무력하게 20萬이나 歲幣를 증액하겠다고 제의한 것에 대해서까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거란은 송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 가운데 최종적으로 세폐의 증액을 선택하였다. 양측이 주고 받은 문서에서는 증액된 20萬 가운데 10萬은 關南 10縣의 조세에 대한 대체물이라는 것이 명시되었다. 다만 거란은 宋이 제공하는 세폐에 대해 ‘獻’이라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부필이 極力 반대하자, 대신 ‘納’이란 용어를 쓸 것을 강요하였다. 부필은 양국이 대등한 敵國 관계인 것, 특히 송이 兄國이라는 사실을 들어 大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거란측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納’이란 표현까지 거부한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지녔던 듯하다. 이에 대해 그는, “그 두 글자를 臣은 죽음으로써 막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랑캐의 氣概가 꺾여 두 글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²¹⁾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양국 사이 歲幣의 증액 문제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다다른 것은, 1042년 9월 거란측의 사자 耶律仁善과 劉六符가 송에 왔을 때였다. 이때 송이 거란에 대해 20萬을 더하여 총액 50萬을 세폐로 제공하며, 그것을 거란의 요구에 따라 ‘納’이라 표현하기로 하였다.²²⁾ ‘納’이란 표현의 수용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宰執의 합의와 건의를 인종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증액된 20萬 가운데 10萬은 거란이 서하로 하여금 송에 稱臣토록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렇게 하여 거란은 군사적 위협만으로 송으로부터 비단 10萬 필과 은 10萬냥의 세폐 증액을 얻어내게 되었다.

20) 위와 같음. 殊姦邪, 黨夷簡, 以欺陛下.

21) <宋史紀事本末> 卷21, <契丹和好>. 二字, 臣以死拒之, 虜氣折矣, 可勿訐也.

22) <遼史>에서는 이와 달리 宋側이 ‘貢’이라 表現하기로 했다고 적고 있다. 卷19, <興宗本紀 2>.

IV. 呂夷簡의 실각과 개혁 세력의 등장

거란의 關南之地 반환 요구를 둘러싼 북송-거란 사이의 외교 교섭은 1042년(인종 慶曆 2) 9월에 일단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증액된 歲幣 20萬 가운데 부대 조건이 달린 10萬과 관련된 거란측의 약속 이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송은 1042년 10월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속한 조치의 강구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거란의 興宗은 ‘곧 지시하여 그대로 하게 만들겠다.’²³⁾라고 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거란은 이듬해인 1043년 정월 서하에 사신을 파견하여 송에 투항하라고 권유하였다. 서하의 李元昊는 거란의 권유를 받은 후 마지못해 송에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서하의 강화 요청은 극히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송에 칭신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송 조정에서는 많은 논의가 오갔다. 거란과의 부실한 합의를 질책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韓琦는, ‘(서하와 거란이) 어찌면 서로 연대하여 우리 中原을 협공해 올지도 모른다.’²⁴⁾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1043년 7월 서하는 거란에게 송에 대한 합동 작전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1043년 서하의 강화 요청은 결국 칭신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측에 의해 거절되었다.

거란의 서하에 대한 압박은 뜻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서하는 오히려 거란의 권유대로 움직이기는커녕 국경 지대에서 거란에 대해 도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1044년 5월에는 거란 경내 黨項族이 거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서하에 투항해 오자 이를 수용하였다. 심지어 거란에 보내는 국서에서 스스로 西朝라 하며 거란을 北邊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하가 적대적 태도를 취하자 1044년 9월 거란은 대군을 이끌고

23) [宋]田況, <儒林公議>. 可指靡立定

24) <長編> 卷142, 仁宗 慶曆 3年 7月 甲午. 亦恐有合從之策, 夾困中原.

서하를 침공하였다. 거란은 서하의 침공에 앞서 송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장차 서하를 정벌할 것이니, 서하가 송에 稱臣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거란은 당시의 서하 정벌이 송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西夏의 무례함을 징벌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언명하고 있었다.

서하는 거란의 대군이 진군해 오자 송과 거란 양면으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송에 사신을 보내 稱臣하며 강화를 요청하였다. 당시 이미 參知政事로서 慶曆 新政을 주도하고 있던 范仲淹은 적극적으로 서하의 투항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다. 歐陽脩와 余靖, 富弼 등도 범중엄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거란 측에는, ‘만일 (거란의 서하 원정이) 李元昊가 北朝에 대해 事大의 禮를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罪에 대한 질책을 진행토록 하라. 하지만 만일 李元昊로 하여금 우리 宋에게 순종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번거롭게 출사하지 않아도 좋다. 이미 邊境의 延州로부터 李元昊가 楊守素를 파견하여 誓文을 들고 우리 宋의 경내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²⁵⁾라고 통지하였다. 송과 서하 사이의 和約, 이른바 ‘慶曆의 和議’는 1044년 10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慶曆의 和議는 송-거란 간에 합의된 내용, 즉 거란이 서하에 영향력을 미쳐 송에 신속시킨다는 형식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체결된 것이었다.

거란의 關南之地 割地의 요구에서 비롯된 송-거란 사이 외교적 절충과 교섭은 당시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여이간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송의 거란측 요구에 대한 일방적 수용 내지 굴복, 그리고 외교적 절충과정의 파행은 臺諫官을 중심으로 한 신진 인사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한 반발은 1042년 9월 양국 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더욱 거세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尹洙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5) <長編> 卷151, 仁宗 慶曆 4年 8月 戊戌. 若以元昊於北朝失事大之體, 則自宜問罪, 或謂元昊於本朝稽効順之故, 則無煩出師. 矧延州昨奏元昊已遣楊守素將誓文入界.

지금 변경 문제만이 우환 거리가 아닙니다. 조정의 정치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폐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民心은 날로 동요하는데 폐하께서는 알지 못합니다. 원컨대 먼저 조정의 정치를 바로잡고 나서 外患에 대처하십시오. 그 다음 忠直한 인사를 등용하십시오.²⁶⁾

그는 우회적으로 呂夷簡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孫沔은 1043년 정월의 상주문에서 ‘지금의 정치를 살펴보면 통탄스러운 상태입니다.’²⁷⁾라고 하며, ‘呂夷簡이 집권한 이래 忠言을 물리치고 直道를 가로막았습니다.’²⁸⁾라고 主張하였다.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산적한 문제에 대해) 태평스레 돌아보지 않으며 편안하다 여긴다면, 土崩瓦解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呂夷簡은 四方에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되 잠자코 지나치고 폐하게 단 한 마디도 直言하지 않으며, 賢人과 不肖者를 가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진대 南山의 대나무를 모두 베어 종이를 만들고 거기에 그 罪를 적는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²⁹⁾

이처럼 반발이 드세어지자 仁宗은 결국 1043년(경력 3) 3월 呂夷簡을 파직시키고, 이어 4월에는 范仲淹과 韓琦를 서면에서 불러 함께 樞密副使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여이간이 재상에서 물러났다 해도 그는 여전히 軍國大事權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인종의 조치가 극히 미흡한

26) <長編> 卷137, 仁宗 慶曆 2年 閏9月 壬午. 方今非獨邊陲之爲患, 朝政日敝而陛下不寤, 人心日危而陛下不知. 臣願先正於內, 以正於外, 然後忠謀漸進.

27) <長編> 卷139, 仁宗 慶曆 3年 正月 丙申. 觀今之政, 是可憫哭

28) 위와 같음. 自呂夷簡當國, 黜忠言, 廢直道.

29) 위와 같음. 若恬然不顧, 遂以爲安, 臣恐土崩瓦解, 不可復救. 而夷簡意謂四方已寧, 百度已正, 欲因病默默而去, 無一言啓沃上心, 別白賢不肖, 雖盡南山之竹, 不足書其罪也.

상태로 머물자, 臺諫官들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蔡襄은, ‘呂夷簡이 中書を 장악한 지 20여년이나 됩니다. 그 동안 폐해를 위해 利益을 일으키고 弊害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니다. 姑息의으로 일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萬事가 이처럼 무너졌습니다.’³⁰⁾ 라고 말하며, 呂夷簡의 軍國大事權 박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빗발치는 반발에 인종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였다. 그리고 1043년 8월 范仲淹을 부재상인 參知政事로 승진시키고 富弼을 樞密副使로 발탁하였다. 이어 9월에는 ‘范仲淹과 富弼은 宰臣인 章得象과 더불어 마땅히 진심을 다해 國事를 처리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조치하도록 하라. 當世의 急務로서 도입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朕에게 進言하도록 하라.’³¹⁾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범중엄은 부필과 상의하여 유명한 『答手詔條進十事』를 상주하게 된다. 이른바 慶曆新政이 개시되는 것이다.

인종은 이와 함께 1043년 9월 여이간을 致仕시켰다. 이 전후 諫官인 歐陽脩, 蔡襄, 王素, 余靖 등은 충분히 상소하여 격렬한 어조로 여이간을 탄핵하였다. 특히 歐陽脩는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呂夷簡은 宰相의 자리에 있으며, 밖으로는 四方 오랑캐의 入寇를 초래하고 안으로는 백성을 곤궁하게 만들었습니다. 賢人과 어리석은 자가 거꾸로 되고 紀綱은 흐트러졌습니다. 그 20년 동안 天下가 무너졌습니다.³²⁾

이어 그는 “呂夷簡은 오랫동안 宰相의 자리에 있었으며, 폐해를 위해 밖으로 四方을 평정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했습

30) <長編> 券140, 仁宗 慶曆 3年 4月 壬戌. 夷簡出入中書, 且二十年, 不爲陛下興利除害, 苟且姑息, 萬事隳壞如此.

31) <長編> 券143, 仁宗 慶曆 3年 9月 丁卯. 仲淹·弼宜與宰臣章得象盡心事國, 毋或有所顧避. 其當世急務有可建明者, 悉爲朕陳之.

32) 위와 같음. 呂夷簡爲陛下宰相, 而致四裔外侵, 百姓內困, 賢愚倒置, 紀綱大壞, 二十餘年間壞了天下.

니다. 오히려 西夏와 거란이 서로 결탁하여 우리 宋을 우환과 근심에 빠트리게 하였습니다. 군사와 백성은 피폐해 지고 上下 모두 困乏해졌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³³⁾ 여이간의 失政은 허다하나 그 중에서도 이적의 外侮를 막지 못한 것을 特記하고 있는 것이다. 慶曆新政을 주도하는 신진 개혁파에게 있어 북방 夷狄으로 말미암은 굴욕이야말로, 呂夷簡을 공격하고 실각시키는 데 있어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명분이었다.

V. 맺음말

1042년(인종 경력 2) 2월 거란은 송에 사신을 보내 關南之地 10縣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關南之地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거란의 요구가 전해지자 송 조정은 큰 충격을 받았다. 거란과의 교섭에 나설 사신을 찾았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외교적 절충의 귀추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위험한 역할을 떠맡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상 呂夷簡이 富弼을 추천하였다. 여이간의 추천은 부필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하는 의도였다. 부필이 거란행 사신으로 결정되자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臺諫官은 일치된 목소리로 여이간의 음험한 책략 및 부필에 대한 위해 기도를 비판하였다. 부필의 거란 사절행을 둘러싼 논란은 북송 정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여이간의 독선적이면서도 부당한 정책이 부각되었고, 더불어 여이간에 대한 반대 세력도 점차 결집되기에 이르렀다.

1042년(인종 경력 2) 4월 부필은 거란에 사자로 파견되었다. 여이간은

33) 위와 같음. 夷簡身爲大臣，久在相位，尙不能爲陛下外平四方，內安百姓，致得二敵交結，中國憂危，兵民疲勞，上下困乏。

여타 宰執들과 협의하여 거란에 대한 대처의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國書에 담아 부필에게 전달시켰다. 아울러 거란의 關南之地 반환 요구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거란 황실과의 혼인 및 歲幣의 증액이었다. 그런데 거란에 제시하는 두 가지 대안을 둘러싸고 송조 내부에서는 상당한 이론이 있었던 듯하다. 특히 여이간에 대해 비판적인 臺諫官을 중심으로 婚姻이 세폐의 증액보다 훨씬 國體를 손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거란은 송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 가운데 최종적으로 세폐의 증액을 선택하였다. 양국 사이 세폐의 증액 문제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다다른 것은, 1042년 9월이다. 송은 거란에 대해 20萬을 더하여 총액 50萬을 세폐로 제공하며, 그것을 거란의 요구에 따라 ‘納’이라 표현하기로 하였다. ‘納’이란 표현의 수용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宰執의 합의와 건의를 인종이 받아들이는 形式으로 決定되었다.

하지만 증액된 세폐 20萬 가운데 부대 조건이 달린 10萬과 관련된 거란 측의 약속 이행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란의 서하에 대한 압박은 뜻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서하는 오히려 거란의 권유대로 움직이기는커녕 국경 지대에서 거란에 대해 도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처럼 서하가 적대적 태도를 취하자 1044년 9월 거란은 대군을 이끌고 서하를 침공하였다. 거란의 서하 정벌은 송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하의 무례함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하는 거란의 대군이 진군해 오자 송과 거란 양면으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宋에 사신을 보내 稱臣하며 강화를 요청하였다. 송과 서하 사이의 和約, 이른바 ‘慶曆의 和議’는 1044년 10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慶曆의 和議는 송-거란 간에 합의된 내용, 즉 거란이 서하에 영향력을 미쳐 송에 신속시킨다는 형식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체결된 것이었다.

거란의 關南之地 割地의 요구에서 비롯된 송-거란 사이 외교적 절충과 교섭은 당시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呂夷簡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 하지

11세기 중반 宋-거란의 접경 지역을 둘러싼 충돌과 외교 교섭

만 송의 거란측 요구에 대한 일방적 수용 내지 굴복, 그리고 외교적 절충 과정의 파행은 臺諫官을 중심으로 한 신진 인사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반발이 드세어지자 仁宗은 결국 呂夷簡을 파직시키고, 范仲淹과 韓琦를 西邊에서 불러 함께 樞密副使에 임명하였다. 11세기 중반 송-거란 사이의 割地 교섭은 북송 정계의 개편에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 송대, 요대, 呂夷簡, 富弼, 慶曆新政, 關南之地, 충돌, 歲幣

(논문투고: 2018.06.04. / 논문심사완료: 2018.06.12. / 논문게재 확정일: 2018.06.15)

참고문헌

1. 자료

- 『宋史』,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遼史』,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點校本.
楊仲良,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黃以周 等, 『續資治通鑑長編拾補』(全4冊), 北京, 中華書局, 2004.
陳邦瞻, 『宋史紀事本末』(全3冊), 北京, 中華書局, 1977.
『宋會要輯稿』(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宋史全文』(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馬端臨, 『文獻通考』(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楊士奇 等編, 『歷代名臣奏議』(四庫全書本)
朱熹, 『三朝名臣言行錄』(『朱子全書』所收, 上海古籍出版社 및 安徽教育出版社, 北京, 2002)
[宋]田況, 『儒林公議』(四庫全書本)
江少虞, 『宋朝事實類苑』, 上海古籍出版社, 1981.

2. 단행본

- 鄧小南, 『祖宗之法』(北京, 三聯書店, 2006)
楊果, 『宋遼金史論稿』(北京, 商務印書館, 2010)
吳曉萍, 『宋代外交制度研究』(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6)
汪聖鐸, 『宋代政教關係研究』(北京, 人民出版社, 2010)
李華瑞, 『宋史論集』(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1)
張其凡, 『宋代人物論稿』(上海人民出版社, 2009)
張其凡, 『宋代政治軍事論稿』(合肥, 安徽人民出版社, 2009)

- 張希清 等, 『澶淵之盟新論』(上海人民出版社, 2007)
- 刁忠民, 『宋代台諫制度研究』(成都, 巴蜀書社, 1999)
- 宋代史研究會 編, 『宋代之知識人-思想·制度·地域社會-』(東京, 汲古書院, 1993)
- 王瑞來, 『宋朝の皇帝勸力と士大夫政治』(東京, 汲古書院, 2001)
- 金成奎, 『宋代の西北問題と異民族政策』(東京, 汲古書院, 2000)
- 遠藤隆俊·平田茂樹·淺見洋二 編, 『日本宋史研究の現状と課題-1980年代以降を中心に-』(東京, 汲古書院, 2010)

3. 논문

- 陶玉坤, 「也論遼宋間的兩屬地」(『宋史研究論叢』 6, 2005)
- 陶晉生, 「宋慶曆改革前後的外交政策」(『宋遼關係史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4)
- 羅繼祖, 「關於“慶曆增幣”一讀史劄記」(『學習與探索』 1986-6)
- 李成學, 「呂夷簡罷相與慶曆新政」(『黑龍江史志』 2013-21)
- 馬曉偉, 「慶曆通寶與“慶曆增幣”淺議」(『華夏文化』 2013-2)
- 穆朝慶, 「從任子制度變遷透視“慶曆新政”夭折的深層社會原因」(『黃河科技大學學報』 2017-4)
- 宋衍申, 「慶曆新政時期的諫言」(『東北師大學報』 1982-4)
- 張顯運, 「從出使契丹看富弼的外交才能」(『信陽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5-6)
- 張希清, 「范仲淹與富弼關係考」(『中州學刊』 2010-3)
- 張希清, 「士大夫與天子“共治天下”-范仲淹與慶曆新政」(『博覽群書』 2010-10)
- 齊夫, 「范仲淹的慶曆新政」(『學習月刊』 2012-7)

朱瑞熙, 「范仲淹“慶曆新政”行廢考實」(『學術月刊』 1990-2)

朱瑞熙, 「新興的官僚地主階級的首次全面改革嘗試－北宋范仲淹慶曆新政」
(『浙江學刊』 2014-1)

朱小琴, 「宋遼關南地之爭」(『西安教育學院學報』, 2000-2)

陳良, 「慶曆新政何以失敗－兼談北宋朋黨之爭」(『學習月刊』 2014-7)

Conflicts and Foreign Negotiation Around Song-Liao's Border Area in the mid-11th Century

Lee, Geun-myung

In February of 1042, Liao sent an envoy to Song and demanded the return of the ten counties of guan-nan region. Guan-Nan region was a strategic point. When Liao's request was announced, the imperial court of Song was shocked. The imperial court looked for an envoy to negotiate with Liao, but no one came forward. No one accepted to take on a dangerous role, as the outcome of a diplomatic compromise is extremely uncertain. In this situation, prime minister Lu Yi-jian recommended Fu Bi. Lu Yi-jian's recommendation was to put Fu Bi in trouble. When Fu Bi was decided to go to Liao, criticism erupted everywhere. In particular, Tai-jian criticized the prayer for the strange tactics and Fu Bi in a matched voice. The controversy over Fu Bi's dispatch of Liao was likely to have a huge impact on Song's political career. This has highlighted Lu Yi-jian's dogmatic and unjust policy, as well as the opposition to him.

In April of 1042, Fu Bi was sent to Liao as an envoy. Lu Yi-jian, in consultation wi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ve, confirmed the direction of his response to Liao, put it in a national document and delivered it to Fu Bi. He also offered two alternatives to his request for Liao to return the ten-counties of guan-nan. It was an increase in marriage and Sui-bi to the Liao kingdom. However, there seems to have been a lot of theory inside Song about two alternatives to Liao. In

particular,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that marriages far more damaging than Sui-bi's increase in national mail and mail, particularly among the critics of Lu Yi-jian.

Liao finally chose to increase Sui-bi among the two alternatives presented by Song. It was in September, 1042, when Sui-bi's question of increase finally came to an agreement. Instead of Sui-bi increasing, Liao promised to press Xixia. However, Liao's pressure on Xixia did not go smoothly. Rather than acting as Liao suggested, Xixia even made a provocation against him on the border. As Xixia took a hostile attitude, in September 1044, Liao led a large army and invaded Xixia. Liao's expedition to Xixia was not to fulfill his promise to Song but to punish Xixia for his rudeness.

Xixia sent an envoy to Song to avoid attacks from both Song and Liao when the army marched on. The peace treaty between Song and Xixia was finally concluded in October of 1044. The treaty was signed in a way far from what was agreed between Song-Liao, the format in which Liao would influence Xixia and speed up Song.

The diplomatic compromise and negotiations between Song and Liao, which originated from Liao's demand for the ten counties of guan-nan region, were led by Lu Yi-jian, who was then in power. However, Song's unilateral acceptance, submission, and lack of diplomatic compromise have caused a huge backlash among young people centering on the admonition officers. In this way, the emperor eventually characterized Lu Yi-jian and named Fan Zhong-yan and Han Qi as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negotiations between Song and Liao in the mid-11th century served as a crucial catalyst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communist politics.

Key Words : Song dynasty, Liao dynasty, Lu Yi-jian, Fu Bi, The new policy of Qingli, guan-nan region, conflicts, Sui-bi